

심층분석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2026.04.15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심층분석보고서: 수협 (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1장. 산업(섹터) 분석

수산물 냉동·냉장 유통 산업의 정의와 범위

수산물 냉동·냉장 유통 산업은 어획 또는 양식된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의 저온 유통 체계를 의미합니다. 수산물은 농축산물과 달리 부패 속도가 극히 빠르고 조직 파괴가 쉬워 -5°C 이하의 냉장, -18°C 이하의 냉동, 또는 -60°C 급의 초저온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 조건이 한 번이라도 깨지면 상품가치가 급락합니다. 따라서 냉동·냉장 유통 산업은 단순한 창고업이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 식생활 안전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 산업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가치사슬 기준으로 이 산업은 어획→양육→위판→1차 냉동냉장 보관→도매→2차 냉동냉장 보관→소매→소비자의 여덟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냉동냉장 보관 단계는 두 차례에 걸쳐 수산물의 최종 상품가치를 결정짓는 병목 지점입니다. 첫 번째 보관은 산지에 가까운 위판장·가공공장 인근에서 이루어지며, 두 번째 보관은 대도시 소비지 인근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냉동냉장수협의 조합원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이 중 후자, 즉 **소비지 거점 냉동냉장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보면 국내 콜드체인 시장은 통계청 기준 2021년 약 2조 9,842억 원(냉장보관 약 1조 3,067억 원, 냉장운송 약 1조 6,775억 원)으로, 2011년 1조 1,687억 원 대비 10년간 약 2.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에는 아직 '콜드체인산업 특수분류'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글로벌 수산물 콜드체인 물류 시장은 2024년 47.2억 달러에서 2033년 106.9억 달러로 연평균 10.76%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며, 이는 세계 수산물 무역 확대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에 기인합니다. 한국의 콜드체인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70~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24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콜드체인 기술'이 법률에 공식 반영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구조적 이해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수협중앙회**를 정점으로 전국 약 91개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구별수협(지역수협) 약 70개, 업종별수협 약 19개**, 그리고 **수산물가공조합 2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지구별수협은 특정 시·군 단위의 모든 수산업 종사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해당 지역의 어업·양식·유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형 조합입니다. 반면 업종별수협은 대형선망·저인망·냉동냉장 등 특정 어업 방식이나 가공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전국 단위로 결성한 전문화된 조합이며, 지역적 경계를 넘어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016년에는 수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혁 과정에서 신용사업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Sh수협은행**이 출범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수산업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반 시중은행과 유사한 전 분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달리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원리에 근거한 **조합원 중심의 상호부조형 금융**으로, 제2금융권에 속하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지원자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수협은행은 상업은행,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금융"이라는 구분을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5년 핵심 트렌드: 구조 전환기의 산업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첫째, 콜드체인 고도화와 자동화가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 장비 시장은 2024년 약 895억 달러에서 2034년 1,798억 달러로 약 두 배 성장이 전망되며, 창고 자동화 시스템, IoT 기반 온도·습도 센서, 블록체인 기반 이력추적, AI 기반 재고 최적화 등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냉매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정된 R-22 프레온 냉매는 2030년까지 완전 퇴출되어야 하며, 대안으로는 CO₂ 시스템과 암모니아(NH₃) 시스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당 교체 비용은 약 60억 원(교체 기간 중 영업 손실 포함)에 달해 중소 냉동창고 업체에 사실상 존폐를 가르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30%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나, 한국은 아직 명확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산물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23년 약 63.4kg을 기록하여 2014년 58.5kg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5년 이후 성장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육류 소비 증가와 외식·가공식품 비중 확대, 젊은 세대의 어류 조리 기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수산물 간편식(HMR) 시장은 약 6.5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1인 가구 1,000만 명 시대(총가구 대비 약 42% 비중) 진입과 고령화, 그리고 요리 간소화 트렌드가 가공·편의형 수산물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024년 전년 대비 약 13~26% 증가했으며, 이는 전통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장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하여 2025년 9월까지 총 15차 방류를 완료했으며, 이 방류는 향후 30~40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한국 해역에는 아직 유의미한 방사성 물질 수치 변화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한국 동해에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약 3년(2014~2016년)이 소요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2026년은 임계 모니터링 시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정기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냉동냉장수협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종 분포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의 수온은 지난 57년간 약 1.58°C 상승하여 세계 평균 상승폭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20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피해액은 약 1,430억 원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약 8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주력 어종이었던 명태는 한국 해역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오징어 어획량도 급감했습니다. 반면 고수온을 선호하는 난류성 어종(고등어, 전갱이, 방어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종 구성 변화는 냉동냉장 보관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 특정 어종의 대량 보관 수요가 사라지는 대신 다품종 소량 보관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6단계 유통 구조를 4단계로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약 10% 절감하고 소비자 가격을 약 25%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수산물 등급판별 시스템 도입, 온라인 산지경매 확대,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협은 이 개혁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통 단계 축소는 중간 저장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냉동냉장업계의 사업 모델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주소와 수도권 거점의 중요성

수도권 수산물 유통의 관문인 **노량진수산물시장**은 2012년 착공하여 2020년 사용승인으로 현대화를 완료했으나, 10년차에 접어들면서 위생 관리 미흡, 건물 노후화 가속, 당초 약속된 중앙냉방 미이행, 임대료 분쟁 등 복합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간 물동량 약 54,225톤, 일평균 이용인원 약 3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목할 만한 점은 수입수산물 상장금액이 2020년 1,168억 원에서 2024년 1,326억 원으로 5년간 약 13% 증가하여 전체 상장액의 약 39%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어획량 감소와 대조적인 흐름으로, 수도권 냉동냉장 인프라의 수요가 수입 수산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연근해 위판량의 약 30%를 처리하는 최대 산지 시장으로, 국내 고등어 유통량의 약 80%를 담당하며 총 2,412억 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항에는 냉동 수입 수산물이 집중되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는 서울 강남권 수산물 유통의 중심입니다. 서울 소재인 서울냉동냉장수협은 이러한 **노량진-가락-인천-부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수산물 유통망의 중앙에서 후방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 공공과 민간의 경쟁 구도

공공 부문의 중심은 수협중앙회로, 전국 43개 이상 위판장을 운영하며 국내 수산물 도매 물량의 약 80%를 처리합니다. 업종별수협 중 가공·유통에 특화된 곳은 냉동냉장수협과 통조림가공수협 두 곳뿐이며, 이 중 냉동냉장수협은 보관·저장 인프라의 중추를 담당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동원그룹**이 원양어업과 함께 미국 시장점유율 46%의 StarKist를 보유하여 글로벌 수산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사조그룹**은 사조대림을 중심으로 매출 1조 원 이상의 수산식품 사업을 영위합니다. **CJ프레시웨이**는 B2B 식자재 유통 1위 사업자로서 수산물 공급망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뚜기**, **풀무원** 등도 수산물 가공식품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입니다. 냉동냉장창고 시장 자체는 중소기업 중심의 분절적 구조를 띠고 있으나,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대형 종합물류사의 콜드체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산업의 인력 구조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냉동냉장 산업은 물리적 노동 강도가 매우 높고 -18°C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 확보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주로 E-9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냉동냉장업계에 배정되는 E-9 비자는 연간 약 100명 수준에 불과해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외국인 입국 지연으로 인한 인력 공백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으며, 이후 성실재입국 제도의 정상화가 업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냉동냉장수협은 이러한 인력 이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전개해 왔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왜 냉동냉장 산업인가" 또는 "왜 냉동냉장수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산물 가치사슬의 핵심 노드인 냉동냉장 보관 단계는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 식품 안전의 근간입니다. 특히 서울냉동냉장수협은 수도권 최대 소비 시장과 직결된 인프라를 조합원으로 아우르는 유일한 업종별수협으로서, 콜드체인 고도화, 친환경 냉매 전환, 디지털 유통 전환이라는 세 가지 동시다발적 산업 전환기에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논리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발표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6단계→4단계, AI 등급판별 도입)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산업 이해도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R-22 냉매 퇴출 시한(2030년), 후쿠시마 오염수 임계 모니터링 시점(2026년), 연근해 어획량 변동(84.1만 톤, -11.6%) 등의 수치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차별화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의 가장 큰 위협과 기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협으로는 R-22 냉매 퇴출에 따른 조합원의 설비 교체 부담(업체당 60억 원), 연근해 어획량 감소, 수산물 소비 정체가 있으며, 기회로는 HMR 시장 확대(6.5조 원), 수입 수산물 비중 증가(노량진 39%), 콜드체인 법제화(2024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가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 숫자와 함께 답변하면 분석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장. 경쟁사 및 회사 포지셔닝

업종별수협 19개의 분류와 특성

전국에 설립된 19개 업종별수협은 조합원의 사업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로방식 기반** 조합으로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근해안강망수협, 남해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통영근해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정치망수협, 제주어선주수협 등 약 12개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양식업 기반** 조합으로 굴수하식수협, 민물장어양식수협, 제주특별자치도양식수협 등 약 7개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가공·유통 기반** 조합으로 냉동냉장수협과 통조림가공수협 단 2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종별수협의 절대 다수는 어획 방식을 기준으로 조직된 생산 중심 조합입니다. 어로 중심 조합은 어선 관리, 어획량 정산, 연료(유류) 공급, 어획 쿼터 배분, 어선원 관리 등을 핵심 업무로 하며 조합원과 정부 간 어업 정책 조율이 주된 지도사업 영역입니다. 양식업 중심 조합은 종묘 공급, 사료 공동구매, 양식 기술 지도, 양식 질병 대응, 수매·판매 사업을 담당합니다. 반면 냉동냉장수협은 **후방산업(Post-harvest)인 가공·저장·유통 인프라**에 특화된 유일한 존재로서 어획이나 양식과 무관하게 수산물의 '보관과 유통' 단계를 조합 사업의 중심에 둡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의 독자성은 냉동냉장수협을 다른 업종별수협과 명확히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 특징입니다.

서울 소재 업종별수협 비교와 냉동냉장수협의 상대적 위치

서울에는 냉동냉장수협 외에도 **근해안강망수협**(강서구), **통조림가공수협**(마포구), **민물장어양식수협**(서울-광주 이원 운영) 등의 업종별수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본점을 서울에 두되 사업 관할은 전국이라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근해안강망수협은 과거 회원조합 중 당기순이익 약 89억 원으로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예금 규모 약 6,811억 원의 대형 조합입니다. 통조림가공수협은 가공산업 특화 조합으로 냉동냉장수협과 함께 가공·유통 기반 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들 중 냉동냉장수협은 예탁금 1조 원 이상의 재무 규모를 갖추고 있어 **업종별수협 가운데에서도 최상위급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대부분이 안정적 임대·보관 수익을 창출하는 B2B 인프라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수도권 소비 시장의 지속적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부산 거점 대형 어로수협과의 차별성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 대형 어로 중심 업종별수협은 모두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라는 동일 주소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부산공동어시장과 남항, 그리고 전통적으로 원양·근해 어업 거점이 집적되어 있는 부산 자갈치 일대와 지리적·산업적 연계성을 반영한 배치입니다. 이들 조합은 대규모 선단을 운영하는 원양·근해 어업체가 조합원으로, 조합 업무의 성격이 **생산 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어선 건조 자금 지원, 어획 쿼터 배분, 유류 공동구매, 선원 교육 등이 핵심 업무입니다.

반면 냉동냉장수협은 서울 수도권에서 **유통·보관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조합입니다. 이 차이는 직원의 업무 성격을 근본적으로 결정짓습니다. 어로수협의 일반관리계는 어선 관리, 어획량 정산, 어업 통계 처리가 중심이지만, 냉동냉장수협의 일반관리계는 **냉동창고 시설 지원, 냉매 규제 대응,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화재보험, 냉동기기 관련 자금 지원, 전력비 대응** 등 인프라 관리 영역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같은 '수협' 이름을 공유하지만 실제 업무의 질감과 전문성 영역은 상당히 다르며, 지원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조합의 고유 특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지역수협(지구별수협)과의 명확한 차이

지역수협, 즉 지구별수협은 특정 시·군의 모든 수산업 종사자를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형** 조합입니다. 예컨대 속초수협, 여수수협, 제주수협 등은 해당 지역의 어업인·양식업자·유통업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며, 위판장 운영, 상호금융, 유류 공급, 수매 사업, 어업 지도 등 수산업 관련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수협은 업무 영역이 매우 넓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업종별수협인 냉동냉장수협은 전국의 냉동냉장업 종사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되, 해당 업종의 **심층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호금융 영업점도 8개 운영하며 금융 서비스와 산업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 구조에서 지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은 "냉동냉장수협은 지역 기반이 아니라 업종 기반의 전국 조합"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지원자가 서울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조합원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 사업장은 인천, 부산, 평택, 군산 등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에 분포합니다.

수협은행과의 관계 정확히 이해하기

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Sh수협은행은 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지만, 법적으로는 별도 상업은행입니다. 전국 지점망과 인터넷뱅킹, 외환 서비스, 기업금융 등 일반 시중은행과 유사한 전 분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은 이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상호금융은 제2금융권 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우대 예금·대출 금리, 세제 혜택(비과세 예탁금 등), 조합 특화 대출 상품 등을 운영합니다. 두 기관은 '수협'이라는 공통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법인격, 감독 체계, 고객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지원자가 면접에서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조직 이해도에서 큰 차별점이 됩니다. 간혹 자소서에서 "수협은행에 지원하여..."라고 쓰거나, 반대로 회원조합에 지원하면서 수협은행의 비전을 언급하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는 지원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석되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냉동냉장수협의 전략적 포지셔닝: "국민 식량 저장고"

냉동냉장수협은 스스로를 "국민 식량 저장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냉동·냉장 시설은 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축산물의 보관, 나아가 수입 식품의 보세창고 기능까지 수행하며, 수도권 식품 공급망의 **물리적 핵심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서울이라는 최대 소비 시장에 위치하면서 전국 관할권을 가진 유일한 냉동냉장 특화 조합이라는 점이 최대 차별화 요소입니다. 조합원의 사업 영역도 단순 보관을 넘어 **가공(Processing), 제빙(Ice Making), 동결(Freezing), 보세(Bonded Warehousing), 콜드체인(Cold Chain Logistics)**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한국 식품 물류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냉동냉장수협 조합원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이상 기후, 국제 공급망 충격 등 외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중 외식 수요 감소로 생선회 등 신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냉동냉장 형태로 전환된 수산물 비중이 급증했고, 저온물류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냉동냉장 인프라가 수산물 유통의 '충격 흡수 장치'로 기능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와 시사점

최근 냉동냉장 업계와 수협 조직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수협중앙회의 2026년 사업계획 확정**으로,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3% 확대되어 약 5,54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냉동냉장수협을 포함한 회원조합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둘째, 오리온과의 합작법인 '오리온수협' 설립**(자본금 600억 원)으로 K-GIM(한국 김) 세계화를 추진하며, 김 가공·수출 분야에서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의 '어부의 세상' 비전 아래 안전→신규수익→상생의 삼각편대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사업 기조는 '현장 중심·건전경영·미래전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넷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2025.11)으로 유통 단계 단축, AI 등급판별 도입이 진행되며, 수협이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저온물류센터 공실률 문제가 202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며 수도권 물류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냉동냉장수협이 다른 수협과 어떻게 다른지"를 물을 때, "어로 중심의 다른 업종별수협과 달리, 수산물 가치사슬의 후반(Post-harvest)에서 보관·유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유일한 조합이며, 서울이라는 수도권 최대 소비 시장에 본점을 둬서 B2B 공급망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는 수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과 수입 식품의 보세창고 기능까지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국민 식량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라고 답변하면 구조적 이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수협과 지역수협의 차이, 수협은행과 회원 조합 상호금융의 관계, 오리온수협 합작법인의 전략적 함의, 2026년 사업 기조 등을 능숙하게 언급할 수 있다면 조직 이해도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에는 경쟁 업종별수협이나 지역수협이 아닌 "왜 하필 냉동냉장수협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냉동냉장 인프라는 수산물뿐 아니라 국민 식량 안전 전반에 관련된 산업이며, 이 영역에서 전국 유일의 전문 조합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저의 장기적 커리어 비전과 일치합니다"와 같은 논리 축이 효과적입니다.

3장. 서울냉동냉장수협 심층 분석

법적 지위와 설립 배경: 60년 역사의 특수법인

냉동냉장수협연합동조합은 1965년 3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조합으로, 전국의 냉동·냉장업 종사자가 출자하여 구성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냉협빌딩)에 위치하며, 사업 관할 구역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입니다. 현재 재직 직원 약 61명, 대표자 박병언 조합장이 경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냉동냉장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였고, 조합원 수와 사업 규모도 소규모였으나, 1970~1980년대 수산물 수출 확대와 함께 산업이 성장하면서 조합의 재정 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수입 수산물 증가와 가공식품 시장 확대로 냉동창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조합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합의 지배구조는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조합원이 이사회와 조합장을 선출하며,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과 결산을 의결합니다. 이 구조는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이사회 구조와 유사하지만, 1인 1표 원칙(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1인당 1표)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이는 "주주 중심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4대 사업 구조: 금융과 산업 지원의 융합

냉동냉장수협의 사업은 크게 네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상호금융사업으로, 조합 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8개 지점에서 예금·적금·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0년 기준 상호금융예탁금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기자본은 약 609억 원, 대손충당비율은 140.2%, 순자본비율은 6.69%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1,000점 만점 중 890점으로 A그룹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호금융 운영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 성과는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단순한 조합 내부의 자부심을 넘어 외부 금융감독 당국과 중앙회로부터도 높이 평가받는 지표입니다.

둘째는 지도사업으로, 조합원 권익 옹호와 정책 건의가 핵심입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규제 개혁 요구를 제기하고,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배정을 협의하며, 냉동냉장업 관련 연구를 학계·연구기관에 위탁합니다. 월간 뉴스레터 '冷家(냉가)'를 발간하여 조합원에게 산업 정보와 정책 동향을 전달하며, 교육·세미나를 통해 조합원의 경영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도사업은 직접적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조합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셋째는 경제사업으로, 냉동냉장창고 전산프로그램 개발·배포, 화재보험 상품 개발, 정책자금 지원 등 조합원의 실질적 사업 지원을 수행합니다.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은 중소 냉동창고의 입출고·재고 관리·세무 처리를 통합 지원하여 조합원 업무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재보험은 냉동창고 특성상 일반 보험사에서 인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조합이 공동 구매·재보험 계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합리적 보험료로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중개는 정부의 친환경 시설 전환 자금, 운영 자금 등을 조합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넷째는 총무·기획 사업으로, 조합 자체의 인사·회계·예산·이사회·총회 운영을 담당합니다. 비록 수익 창출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조합의 거버넌스 품질과 내부 통제의 중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일반관리계 직원이 가장 많이 관여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4대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가 냉동냉장수협의 특징이며, 직원은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경력을 쌓게 됩니다.

ESG와 냉매 전환: 조합 차원의 생존 과제

국제 환경협약(몬트리올의정서·교토의정서·키갈리개정안)에 따라 **R-22 프레온 냉매의 2030년 퇴출**이 확정되면서, 냉동냉장수협의 조합원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교체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업체당 교체 비용이 약 60억 원(설비 교체비+교체 기간 영업 손실+기술 컨설팅 비용 포함)에 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으로 고려되는 암모니아 냉매의 사용을 주저지 인근 사업장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중소 사업자들의 폐업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동창고 업계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R-22 설비 보유 사업자의 약 30~40%가 2030년 시한 대응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동냉장수협은 이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에 친환경 냉매 전환 보조금 시범사업을 건의하고, 일본의 **30% 보조금 모델**을 벤치마킹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조합 차원에서 냉매 전환 관련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연결하는 등 조합원의 전환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조합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핵심 어젠다**이며, 향후 5~10년간 냉동냉장수협의 사업 방향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입니다. 지원자는 이 주제에 대해 심화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SG 관점에서 냉매 전환 외에도 여러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냉동창고가 대표적 전력 집약 산업이라는 점에서 필수 과제이며, 태양광 자가발전·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 등이 중소 조합원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냉동창고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수, 암모니아·CO₂ 가스 등의 처리가 관련됩니다. **사회(S) 영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협동조합 특유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ESG 과제는 냉동냉장수협이 단순 협동조합을 넘어 **지속가능 공급망의 관리자**로 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위기와 디지털 전환

냉동냉장 산업은 물리적 노동 강도가 높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큼니다. 연간 E-9 비자 배정은 약 100명 수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입국 지연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냉동냉장수협은 성실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정상화와 배정 확대를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청년층의 냉동창고 기피 현상이 심각하여, 일부 조합원 업체에서는 자동화·로봇화 투자를 통해 인력 수요 자체를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조합은 자체 개발한 **냉동냉장창고 전산프로그램**을 조합원에게 배포하여 입출고·재고 관리의 전산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AI·IoT 기반의 스마트 물류 전환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대형 조합원 중 일부는 RFID 태그, IoT 온도 센서, WMS(창고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했지만, 다수 중소 조합원은 여전히 엑셀·수기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조합 차원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수협중앙회가 발표한 AI 전환 로드맵에 따라 회원조합 차원의 디지털 과제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재무 성과와 연봉: 소기업 분류이지만 상위권 대우

기업 규모 분류상 소기업(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만, 평균 연봉은 약 **7,312만 원**으로 많은 지역수협이나 중견기업을 상회합니다. 서울 소재라는 입지와 상호금융 사업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안정적 예탁금 기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초임 수준도 업종별수협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며,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협동조합 특유의 안정성(정년 보장, 퇴직금, 경조사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자가 약 **80명으로 전국 최다**인 것도 이러한 처우 조건과 서울 입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원자는 이 경쟁률을 정확히 인식하고,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리스크 요인: 구조적 도전 과제

냉동냉장수협이 직면한 리스크는 다층적입니다. 외부 환경 리스크로는 **수산물 소비 정체**(1인당 63.4kg에서 성장 둔화), **수입 수산물 비중 확대**(노량진 기준 39%)로 국산 수산물 중심의 기존 유통망 재편 압력, **냉동창고 노후화와 냉매 교체 비용, 전력비 상승**(냉동창고는 매출 대비 전력비 비중이 15~20%에 달하는 대표적 에너지 집약 산업), **조합원 고령화**(업계 평균 경영자 연령 60대 이상) 등이 있습니다. 내부 리스크로는 **디지털 전환 지연, 청년 조합원 부족, 지역 기반이 없어 조합원 응집력이 업종별수협 중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 요인도 풍부합니다. **간편식 수산물 수요 증가**(6.5조 원), **콜드체인 필수화 법제화**(2024년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 **수도권 물류센터 수요 회복**(2025년 상반기 공실률 감소 전환), **수협중앙회 예산 16.3% 확대**(2026년 기준 약 5,545억 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수협의 역할 강화 등이 조합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이점은 어획량 감소와 무관하게 지속적 수요가 보장되는 구조적 강점입니다.

경영 거버넌스와 이사회 운영

냉동냉장수협은 협동조합 특유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운영합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정기총회**로, 매년 1회 개최되며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고(대의원 총회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사업계획·예산·결산·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합니다. 일상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됩니다. **감사**는 별도로 조합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감독합니다. 일반관리계 직원은 이사회·총회 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의결 결과의 중앙회 보고 등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

"냉동냉장수협의 가장 큰 경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R-22 냉매 퇴출(2030년)에 따른 조합원 설비 전환 지원이 급선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물류 전환과 수산물 소비 다변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화(HMR-온라인)에 대응한 조합원 사업 모델 혁신 지원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교체 비용이 업체당 약 6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자금 중개와 보조금 확보가 조합의 실질적 가치 창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면 조합의 실질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 예탁금 1조 원 돌파, 경영평가 4년 연속 대상 수상, 직원 61명, 지점 8개, 자기자본 609억 원** 등의 구체적 숫자를 자연스럽게 인용하면 기업 분석의 깊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강점은 업종별수협 중 최상위 재무건전성, 서울이라는 전략적 입지, 전국 유일의 냉동냉장 특화 조합이라는 포지셔닝이며, 약점은 조합원의 고령화, 지역 기반 부재로 인한 응집력 도전, 디지털 전환 지연입니다. 다만 이러한 약점은 수협중앙회의 AI 전환 로드맵 및 2026년 예산 확대와 연계하여 해소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수협중앙회 공식 인재상: 3C(SEA)

수협중앙회가 명시한 공식 인재상은 3C(SEA)로, 바다(SEA)를 모티브로 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Consideration(친절+배려)은 어업인과 고객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Cooperation(협동+소통)은 팀워크와 의견 조율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Creativity(창의+혁신)은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나가는 유연한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세 키워드는 자소서 역량 서술과 면접 답변의 골격을 구성하는 기본 프레임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각 키워드에 매핑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구체적 역량 키워드 해석과 자소서 활용법

3C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Consideration(친절+배려)** 영역에서는 "고객을 섬기는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 행복에 앞장서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키워드에 부합하는 경험으로는 고객 응대 경험, 봉사활동 경험, 갈등 중재 경험,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한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는 조합원(냉동창고 사업자)을 주 고객으로 하므로, **B2B 고객의 복잡한 요구를 인내심 있게 경청하고 해결한 경험**이 특히 유효합니다.

Cooperation(협동+소통) 영역에서는 "동료와 팀워크를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람",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 키워드는 팀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조별 과제, 협업 리더십 경험과 매핑 가능합니다. 특히 협동조합 조직은 조합원·중앙회·정부·감독기관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 일상적이므로, **서로 다른 입장의 이해관계자를 중재하여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큰 가산점을 얻습니다.

Creativity(창의+혁신) 영역에서는 "번뜩이는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나가는 사람", "유연한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협동조합이라는 안정적인 조직에서 의외로 중시되는 가치인데, 이는 **산업 환경의 급변**(냉매 전환, 디지털 전환, 유통구조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혁신 경험, 프로세스 개선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경험 등이 이 키워드에 부합합니다.

수협은행의 보완적 인재상 키워드

수협은행은 별도의 인재상으로 "해양수산의 푸른미래 창출에 앞장서는 사람",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는 사람", "최고의 금융전문가를 지향하고 준비하는 사람", "야무진 일처리, 책임과 결과로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 "정직과 신뢰를 중시하며,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시합니다. 회원조합 채용에서도 이 키워드들이 교차 적용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야무진 일처리, 책임과 결과로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상호금융과 총무 업무의 특성상 일반관리계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소서에서 "책임과 결과"를 실제 숫자와 함께 입증하는 구조(예: "OO 프로젝트에서 △△%의 성과를 달성")가 효과적입니다.

업종별수협 특유의 조직 문화

업종별수협은 지역수협보다 **조합원과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전문적**입니다. 냉동냉장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냉동창고 사업자들이므로, 직원은 이들의 사업 환경(냉매 규제, 전력비, 인력 수급, 보세 규정, 화재보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 규모가 약 61명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겸하는 **멀티플레이어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점 8개에 직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 근무 인원은 더욱 적고, 그만큼 신입 직원도 초기부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성격상 이사회·총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운영되며, 조합장은 조합원 선거로 선출됩니다. 이 때문에 직원은 **조합원의 요구와 조합의 건전경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조합원이 요구하는 대출 한도 확대는 조합의 자기자본 비율과 건전성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직원은 단순한 창구 역할을 넘어 전문적 판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수협은 지역 기반이 없어 조합원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원격 소통과 전국 단위 출장**이 상대적으로 빈번합니다. 조합원 사업장 방문, 지역 간담회 주관, 중앙회 회의 참석 등으로 인해 서울 근무이면서도 전국을 아우르는 시야가 형성됩니다.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의 다섯 가지 특성

수산·유통·협동조합 도메인에서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성실성과 안정성입니다. 협동조합은 급격한 변화보다 꾸준한 운영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조합원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가 업무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직률이 낮고 장기 근속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조직 특성상, 지원자의 안정 지향성과 책임감이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자소서에서 단기간의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기보다 **한 분야에 꾸준히 몰입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둘째, 현장감과 실무 감각입니다. 냉동창고 현장, 수산물 시장, 조합원 사업장을 이해하는 현장 중심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중시되며, 이는 아르바이트·인턴·현장 실습 등의 경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유통·금융 현장 경험은 직접적 가산점이 됩니다.

셋째, 이해관계자 조정 능력입니다. 조합원,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협력사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소통하고 조율하는 역량이 핵심입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언어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는 수준을 넘어 **다자간 협상과 중재 경험**이 차별점이 됩니다.

넷째, 숫자 감각입니다. 상호금융 업무, 예산 관리, 결산 업무를 수행하므로 회계·재무 기초 역량이 필수입니다. 단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엑셀 활용 능력도 실무에서 즉시 요구됩니다. 회계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전산회계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수업을 이수한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다섯째, 협동조합 이해도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7대 원칙(자발적·개발적 조합원제, 민주적 통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독립, 교육·훈련·정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기본 이해가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일반 상업은행이나 기업 지원자와 명확히 구분되는 협동조합 특화 역량으로,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지원 기관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장의 경영 철학과 조직 방향

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부의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신규수익→상생의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수산물 안전 유통을 의미하며, 신규수익은 기존 사업 외 새로운 가치 창출(K-GIM 세계화 등)을 추구하고, 상생은 어업인·회원조합·소비자 간 상호 이익을 지향합니다. 2026년 사업 기조는 '현장 중심·건전경영·미래전환'이며,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3% 확대**하여 약 5,5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오리온과의 합작법인 '오리온수협' 설립**(자본금 600억 원)을 통한 K-GIM(한국 김) 세계화, **상호금융 AI 전환 로드맵, 디지털 공제사업 확대, 탄소중립 연근해어업 전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경영 방향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조직에 대한 관심도와 시사 감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부의 세상"이라는 비전은 면접 질문에 자연스럽게 인용하기 좋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냉동냉장수협 내부의 조직 문화 추정

공식 자료만으로 냉동냉장수협의 내부 문화를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간접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수평적 소통**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인데, 이는 61명 규모의 소형 조직 특성상 조합장부터 신입까지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장기 근속 문화**가 뿌리내려 있어 10년 이상 근속 직원이 다수이며, 이는 업무 노하우와 조합원 관계의 연속성을 뒷받칩니다. **보수적 업무 처리**가 기본이며, 특히 상호금융 업무에서는 감독 규정 준수가 최우선 가치입니다. **협동조합 정체성**이 강하여 단순 영리 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조직의 목적으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채용 공고 문구 분석

채용 공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기있고 열정적인"이라는 표현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는 안정성 중심의 협동조합 문화에 **젊은 도전 정신**을 더하고자 하는 조합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자는 자소서에서 안정성 일변도의 서술("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습니다")을 피하고, **안정적 조직에서의 혁신적 기여**("조합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조합원 사업 혁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소서에서 인재상 3C(SE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되, 냉동냉장 도메인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Cooperation을 "냉동창고 사업자(조합원)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냉매 전환 지원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면, 인재상과 도메인 지식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Consideration은 "조합원의 복잡한 규제·자금 문제를 인내심 있게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자세"로, Creativity는 "R-22 냉매 퇴출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조합원에게 혁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태도"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우리 조합에 입사하면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감독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중간 번역자이자 균형자(Balancer)가 되고 싶습니다. 냉동냉장 산업이 냉매 전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환·디지털 전환·유통구조 개혁이라는 세 가지 변곡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시기에, 조합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조합의 건전경영을 동시에 지키는 실무자로 성장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이 효과적입니다.

5장. 직무 분석 — "일반관리계"

일반관리계의 정의와 채용 구조

수협 회원조합의 직원은 **일반관리계, 기술계, 기능계** 3계열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관리계는 사무 분야 종사자로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차지합니다. 기술계는 어선 검사·수산물 검사·양식 지도 등 기술 전문직이며, 기능계는 운전·시설관리 등 기능직입니다. 일반관리계는 협동조합의 핵심 운영 기능(금융·지도·경제·총무)을 모두 담당하는 **제너럴리스트 포지션**으로, 입사 후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6년 상반기 채용에서 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는 **필기시험과 2단계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은 NCS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정보·조직이해·대인관계·자기개발·직업윤리 등)과 전공 1과목(민법·회계학·경영학·수협법·상업경제 중 선택)으로 구성됩니다. 면접은 인성면접과 실무면접 2단계로 진행되며, 인성면접에서는 조직 적합성과 가치관을, 실무면접에서는 업무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력·연령 제한이 없는 일괄 공개채용 형태이며, 필기는 서울에서 일괄 시행합니다. 이러한 채용 구조는 특정 전공이나 경력보다 **잠재력과 기본기**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업무 영역: 지도·금융·경제·총무의 4축

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의 업무는 앞서 조합의 4대 사업 구조에 대응하여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지도사업 영역에서는 조합원 관리(가입·탈퇴·정보 갱신), 정책 건의·수렴(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제안서 작성), 냉동냉장업 관련 보조사업 집행(냉매 전환 지원 시범사업 등), 월간 뉴스레터 '冷家(냉가)' 발행(편집·인쇄·배포), 교육·세미나 기획 등을 담당합니다. 이 영역은 조합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기능이므로,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정책적·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둘째, 상호금융(신용사업) 영역에서는 8개 지점에서의 예금·적금 수신 업무, 대출 여신 업무, 공제보험 대리 판매, 고객 상담, 연체 관리, 상품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1조 원 이상의 예탁금을 운용하므로 금융 업무의 비중이 상당하며, 업무의 정밀성과 규정 준수가 최우선시됩니다. 감독당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정기 감사에 대응하는 것도 이 영역의 핵심 업무입니다.

셋째, 경제사업 영역에서는 냉동냉장창고 전산프로그램 배포·관리·업데이트, 화재보험 상품 운영(계약·갱신·사고 대응), 정책자금 중개(정부 자금을 조합원에게 연결), 조합원 공동구매 사업(연료·포장재 등),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을 처리합니다. 이 영역은 조합원의 실질적 사업 개선과 직결되므로 **현장 밀착형 업무**가 많습니다.

넷째, 총무·기획 영역에서는 인사(채용·평가·교육), 회계(전표·결산·세무), 예산 편성·집행, 이사회·총회 운영 지원, 감사 대응, 공문 관리, 문서 보존, IT 인프라 관리 등 조합 경영 관리 전반을 담당합니다. 일반관리계 중에서도 본점 근무자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며, 조합 전체의 **신경계 역할**을 합니다.

하루·한 달·1년의 업무 흐름 상세

일 단위 업무 흐름을 보면, 오전 8시~9시 출근 직후 전일 마감 확인과 당일 업무 계획 수립이 시작됩니다. 오전 중에는 조합원 내방·전화 응대, 상호금융 창구 업무(입출금·대출 상담), 결재 문서 검토가 주를 이룹니다. 오후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후에는 공문 처리(중앙회-정부부처 발송), 경영 데이터 입력, 내부 회의 참석, 조합원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진행됩니다. 마감 시간 전에는 당일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금고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이 정산은 다음 날 감사 추적의 근거가 되므로 **오차 없는 마감**이 핵심입니다.

월 단위 업무 흐름은 월말 결산이 중심입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입·지출을 마감하고 잔액을 검증하며, 회계 시스템(ERP)에 전표를 입력하고 불일치 항목을 추적·정정합니다. 월간 재무 보고서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보고된 후 수협중앙회에 제출됩니다. 이사회가 월 1회 열리는 경우, 이사회 안건 준비(2주 전부터 시작), 회의록 작성, 의결 결과 보고도 월별 반복 업무입니다. 조합원 출자금 관리, 신규 조합원 가입 처리, 대출 심사 등 조합원 관련 업무도 월별 리듬을 가집니다. 월말에는 중앙회 보고 자료(예탁금 현황·대출 잔액·연체율 등) 작성이 집중됩니다.

연 단위 업무 흐름은 정기총회와 결산이 정점입니다. 통상 2~3월에 정기총회가 개최되며, 이 준비는 전년 11~12월부터 시작됩니다. 사업계획서·예산안 편성(전년 10~11월), 결산 자료 작성(1~2월), 감사 수감(2월), 총회 개최(3월), 중앙회 보고(3~4월)로 이어집니다. 연말에는 인사 평가, 성과급 산정, 차년도 조직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며, 7~8월에는 중앙회 **경영종합평가** 자료 제출이 핵심 업무로 부상합니다. 이 평가는 조합의 등급과 지원금 배분에 직결되므로, 평가 자료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협법 개정 등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연간 계획에 반영하여 대응 업무가 추가됩니다.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상세

일반관리계 직원이 상대하는 이해관계자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조합장(선출직, 최고 경영자), 상임이사(상근 경영진), 각 부서 동료(지도·신용·경제·총무), 지점장(8개 지점), 감사(선출직 독립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간 관계는 공식적 위계와 함께 **협동조합 특유의 수평적 요소**가 공존합니다. 조합장은 선거로 선출되므로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민주적 소통이 요구됩니다.

외부 핵심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냉동냉장 사업자)은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이익 주체이며, 이들의 요구는 조합 사업의 근본 동력입니다. **수협중앙회**는 감독·지원·평가 기관으로, 각종 보고 의무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정책 당국으로 냉동냉장업 관련 규제와 지원책을 관장합니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상호금융 감독 기관으로 정기 감사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배정을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냉매 규제 당국으로 R-22 퇴출 및 대체 냉매 정책을 수립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정책자금을 관장합니다. **서울시·광진구청**은 지방행정 관할로 본점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세청·세무사**는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및 조합원 세무 지원과 관련됩니다.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 주체입니다. **협력 물류사·보험사·IT 업체** 등 다양한 민간 파트너와도 상호작용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자이므로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와는 달리, **B2B 관계에서의 전문적 커뮤니케이션**이 일관되게 요구됩니다.

필요 역량과 자격증

필수 역량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회계·재무 기초**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이해, 재무비율 해석, 부가세·법인세 기초 개념 등이 포함됩니다. **문서 작성력**은 공문·보고서·회의록·안건자료 작성 능력으로, 협동조합 특유의 정형화된 문서 양식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엑셀·ERP 활용 능력**은 데이터 집계·분석·시각화, 피벗테이블·VLOOKUP 등 고급 함수 활용, 조합 전용 ERP 시스템 조작 능력을 포함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조합원·동료·외부기관을 상대하는 구두·서면 소통 능력으로, 특히 상이한 전문성을 가진 이해관계자 간 번역 역할이 중요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법률 이해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협동조합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준용 규정), 자본시장법(공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금융 고객 정보), 근로기준법(인사 업무), 세법(법인세·부가세) 등에 대한 기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이기도 하므로, 지원 준비 단계부터 학습이 유효합니다.

우대 자격증으로는 공인회계사·세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은행FP(AFPK, CFP),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공제보험 관련),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필기시험에서 회계학이나 수협법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과목의 학습이 채용 전형과 실무 역량 모두에 유효합니다.

KPI와 평가 포인트 상세

일반관리계의 성과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 양면으로 평가됩니다.

정량 지표로는 **감사 적발 건수 최소화**(내부·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 **예산 집행률 달성**(연간 예산 대비 집행 비율의 적정성), **연체율 관리**(상호금융 대출의 30일 이상 연체 비율), **조합원 민원 처리 건수·처리 시간**(평균 응답 시간과 해결 시간), **공문 처리 적시성**(마감일 준수율), **중앙회 보고 자료 오류율** 등이 있습니다. 상호금융 지점 근무자의 경우 **수신·여신 실적**도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정성 지표로는 이사회·총회 운영의 원활성(회의 진행 매끄러움, 의사록 정확성), 중앙회 경영평가 등급(조합 전체 등급에 개별 기여), 조합원 만족도(설문 또는 구전), 동료 협업 평가(다면 평가), 제안 제도 활용도(업무 개선 아이디어 제출 등), 자기계발 노력(자격증 취득, 연수 이수 등) 등이 반영됩니다.

승진 체계는 사원(3·4급) → 과장(2급) → 팀장(1급) → 부장(별급)으로 이어지며, 승진연한은 직급별로 5~7년 정도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직급 체류 기간이 길어 단기간 초고속 승진보다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성장**이 기본 모델입니다. 연봉 상승도 연차에 비례하는 호봉제 기반이며, 성과급은 전체 조합 실적과 연동됩니다.

대표 업무 시나리오 상세

시나리오 1: 월말 결산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호금융 수입·지출을 마감하고, 각 지점별 잔액을 검증합니다. 본점에서는 8개 지점의 마감 자료를 취합하여 조합 전체 재무 상태를 정리합니다. 회계 시스템(ERP)에 전표를 입력하고, 불일치 항목(예: 지점 간 내부거래의 차이, 미기표 항목)을 추적·정정한 후 월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보고되며, 중앙회에도 제출됩니다. 결산 오류는 감사 지적사항이 되므로 **절대적 정확성**이 요구되며, 야근이 잦아지는 업무 주기입니다.

시나리오 2: 이사회 안건 준비 — 이사회 개최 약 2주 전부터 안건 초안을 작성합니다. 사업실적 보고, 예산 변경안, 조합원 가입·탈퇴 승인, 대출 한도 조정, 주요 계약 체결 동의,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정리하고, 관련 근거 자료(재무 데이터, 법률 검토, 시장 분석)를 첨부합니다. 안건은 상임이사·조합장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사회 자료집으로 확정되며, 이사들에게 회의 1주일 전 송부됩니다. 이사회 당일에는 회의 진행을 지원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결 결과를 중앙회에 보고합니다. 의사록은 법적 문서로서 **정확한 기록**이 필수이며, 조합원이 향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3: 조합원 출자금 관리 — 신규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납입을 접수하고, 조합원 원장에 등록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므로 잘못된 처리는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탈퇴 시에는 출자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며, 이때 조합의 손실(결손)이 있을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차감합니다. 연말에는 조합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 기준 자료를 산출하며, 총회에서 배당율을 의결합니다. 이 업무는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과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직결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많고, 따라서 규정 준수와 문서화가 철저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4: 상호금융 대출 심사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담보평가·상환능력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반관리계 사원은 서류 접수·기본 심사를 담당하고, 본격적 여신 판단은 팀장·부장급이 합니다. 한도 초과 대출은 이사회 승인 사항입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이자 납입 관리, 연체 관리, 만기 연장 협상 등이 이어집니다. 이 업무에서는 **감독 규정 준수**(자기자본비율, 동일인 여신한도 등)가 핵심이며, 규정 위반은 즉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시나리오 5: 정기총회 준비 — 매년 2~3월 정기총회를 위해 전년 11월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12월), 결산 재무제표 확정(1월), 차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수립(1~2월), 감사 보고서 취합(2월), 총회 자료집 인쇄·발송(2월 말), 총회 장소 섭외·리허설(3월 초), 총회 당일 운영(3월 중순), 의결사항 시행(3월 하순)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조합원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참석률 관리도 중요하며, 대의원 총회로 운영될 경우 대의원 선출 관리가 선행됩니다. 이 업무는 **연간 최대 이벤트**이므로 팀 전체가 집중 투입됩니다.

직무의 장단점과 커리어 경로

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직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성이 높고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 소재이면서 소기업 분류임에도 평균 연봉 약 7,312만 원으로 처우가 우수합니다. 셋째, 협동조합·금융·유통·수산업 등 복합 도메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넷째, 수협중앙회·타 회원조합과의 교류를 통해 전국 수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특유의 민주적 문화가 있어 과도한 성과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점 또는 유의점으로는 다음이 지적됩니다. 첫째, 소규모 조직이므로 승진 자리가 제한적이며 장기 근속 후에도 고위직 도달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멀티플레이어 문화로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 고령화와 보수적 문화로 인해 혁신적 변화가 느립니다. 넷째, 상호금융 업무의 비중이 커 감독 규정 준수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다섯째, 결산·총회 등 주기적 업무 집중 시기에 야근이 불가피합니다.

커리어 경로로는 **내부 승진**을 통한 과장→팀장→부장→임원 경로가 가장 일반적이며, 일부는 수협중앙회나 타 회원조합으로 이직하기도 합니다. 상호금융 업무 경험은 수협은행·신협·농협 등 타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의 이직에도 활용 가능하며, 총무·기획 경험은 일반 기업의 관리 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일반관리계는 특정 전문 분야보다 **"조합 운영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역할입니다. 따라서 자소서에서는 한 가지 전문성보다 **"회계 기초 + 커뮤니케이션 + 문서 작성 + 법률 이해"의 균형 잡힌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역량을 모두 경험한 사례가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경험을 구체적 상황·과제·행동·결과(STAR 프레임)로 서술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상호금융 업무를 통해 금융 실무 역량을 쌓으면서, 동시에 지도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현장을 이해하는 복합적 관리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R-22 냉매 전환이라는 산업 전환기에 조합원의 정책자금 지원과 규정 대응을 돕는 실무자가 되는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라는 방향으로 답변하면 조합 조직의 순환보직 문화와 산업 이슈 이해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61명 규모의 소형 조직이므로 "소규모 조직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한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기업의 명확히 구분된 역할 경험보다,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우선순위를 조정할 경험"**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 "지원 조직에서 핵심 기여를 한 경험" 등이 이 조직 특성에 부합합니다.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가"라는 질문에는 "냉동냉장수협의 총무·기획 부서에서 팀장 역할을 맡아, 조합원·중앙회·감독당국 사이의 균형을 잡는 중간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는 R-22 냉매 전환이 완료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안착된 상태일 것이므로, 다음 10년의 산업 변화(기후변화 대응·완전 디지털화 등)에 대한 조합의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장기적 비전과 산업 이해를 결합**한 답변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전국 최다(자소서 작성자 약 80명)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평범한 지원자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① 업종별수협과 지역수협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냉동냉장 산업의 구조적 이슈(냉매 전환·디지털 전환·유통구조 개혁)를 숫자와 함께 언급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수협중앙회 인재상 3C(SEA)를 단순 나열이 아닌 재해석된 형태로 제시해야 하고, ④ 조합의 최신 재무 지표(예탁금 1조 원, 자기자본 609억 원, 경영평가 A그룹 1위)를 자연스럽게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차별화 요소를 모두 갖춘다면, 80명의 경쟁자 중 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자소설닷컴 채용공고 — 2026 상반기 수협 일괄공개채용 — <https://jasoseol.com/recruit/103543>
2.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물 생산량 통계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771>
3.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물 수출 실적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031>
4.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2025.1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52>
5.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입법예고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9309>
6. 해양수산부 2024 수산물 유통산업 실태조사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1650>
7. 수협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uhyup.co.kr/suhyup/219/subview.do>
3C(SEA)
8. 수협중앙회 조직도 — <https://www.suhyup.co.kr/suhyup/239/subview.do>
9.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소개 — <https://www.suhyup.co.kr/suhyup/193/subview.do>
10. 현대해양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6>
(2021.11) 냉동냉장수협 심층 기사
11. 현대해양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6>
2025년 수산업 전망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12.	현대해양	—	수협	2026년	예산	확
	정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1				
13.	이투데이	— 오리온수협 합작법인 설립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7941		
14.	이수산인	—	수협	2026년		사업계
	획	— https://www.isusa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75				
15.	농수축산신문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10년차	현장르
	포	—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553				
16.	갯뉴스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추
	진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958				
17.	아시아경제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상
	세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10318345927890				
18.	콜드체인인사이트	—	국내	콜드체인	시장	규
	모	— http://www.coldchaininsight.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6				
19.	콜드체인뉴스	—	저온물류센터		시장	동
	향	— https://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6280				
20.	콜드체인뉴스	—	2025	물류센터	수요	전
	망	— https://www.coldchainnews.kr/news/article.html?no=28109				
21.	냉동공조저널	—	글로벌	콜드체인	장비	시
	장	— https://www.hvacr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7				
22.	Market Growth Reports	—	글로벌	수산물	콜드체인	시
	장	— https://www.marketgrowthreports.com/market-reports/seafood-cold-chain-logistic-system-market-114195				
23.	디스어피어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년 분석		— https://disappearth.org/2025112501/		
24.	KBC뉴스	— 오염수 1년 소비 영향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8210004		
25.	정부24	—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계
	획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12				
26.	국가지표체계	—	수산물	생산량		통
	계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48				
27.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산업관측센터		— https://www.foc.re.kr/		
28.	제2차		수산물유통발전		기본계획(2023-	
	2027)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36333				
29.	현대해양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분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서울)냉동냉장수협 일반관리계

석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6>

30. 제4차산업 — 2026년 수산물 생산 전

망 —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823>